



## 유럽 증시, 침체 및 인플레이 불안에도 반등

### 유럽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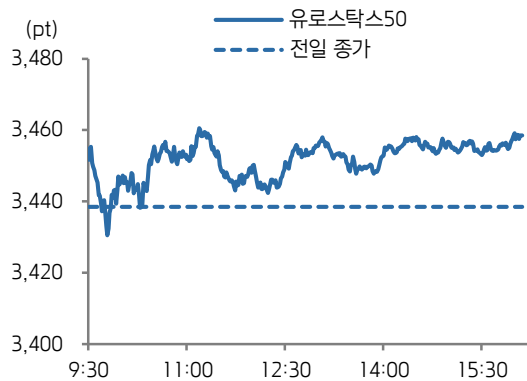
20 일(월) 미국 증시는 노예해방 기념일로 휴장. 유럽 증시는 독일 5 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급락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1%대 강세. (유로스톡스 50 +0.9%, 독일 DAX +1.1%, 프랑스 CAC +0.6%, 영국 FTSE +1.5%) 전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은행(+3.3%), 여행레저(+3.0%), 에너지(+2.1%)의 상승폭이 가장 컸음.

독일 5 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33.6%(예상치 33.8%, 전월치 33.5%) 상승하며 예상치를 상회, 사상 최고 수준 기록. 전월대비로는 1.6%(예상치 1.5%, 전월치 2.8%)를 기록하며 소폭 둔화. 집계측은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의 원인은 에너지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언급. 에너지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87.1%, 에너지 제외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6.5% 상승했다고 밝힘.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영국, 캐나다 등 동맹들과 러시아 에너지 판매 수입을 줄이기 위한 유가 상한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저소득층 및 개도국을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격예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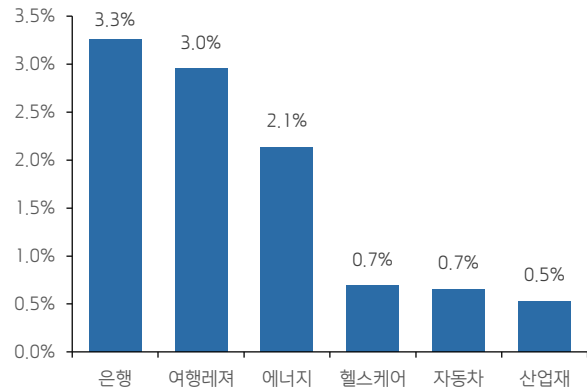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목표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미국 경제에 위험하며, 미 연준은 물가 압력 완화라는 목표가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1980 년대 볼커 시대의 경기침체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으며, 기준금리를 1 년만에 3%p 인상했던 1994 년의 경험을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물가에 대한 의지와 매파적 스탠스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임.

EUROSTOXX50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674.84	+0.22%	USD/KRW	1,291.94	+0.31%
NASDAQ	10,798.35	+1.43%	달러 지수	104.48	-0.21%
다우	29,888.78	-0.13%	EUR/USD	1.05	+0%
VIX	31.03	-0.32%	USD/CNH	6.69	+0%
러셀 2000	1,665.69	+0.96%	USD/JPY	135.07	+0%
필라. 반도체	2,578.54	+0.46%	<b>채권시장</b>		
다우 운송	12,868.60	-0.43%	국고채 3년	3.668	-8.2bp
<b>유럽, ETFs</b>			국고채 10년	3.785	-1bp
Eurostoxx50	3,469.83	+0.91%	미국 국채 2년	3.179	+0bp
MSCI 전세계 지수	586.16	+0.28%	미국 국채 10년	3.226	+0bp
MSCI DM 지수	2,485.77	-0.19%	<b>원자재 시장</b>		
MSCI EM 지수	1,004.63	-0.35%	WTI	110.27	+0.65%
MSCI 한국 ETF	59.70	+0.78%	금	1840.6	-0.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b>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b>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8%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38%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6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1.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b>주요 체크 사항</b>	1. 기술적 과매도 국면 인식에 따른 반등 시도 가능성 2. 장전 동시호가 및 장 개시 직후 반대매매 물량 출회로 인한 수급 노이즈 확대 가능성 3. 장중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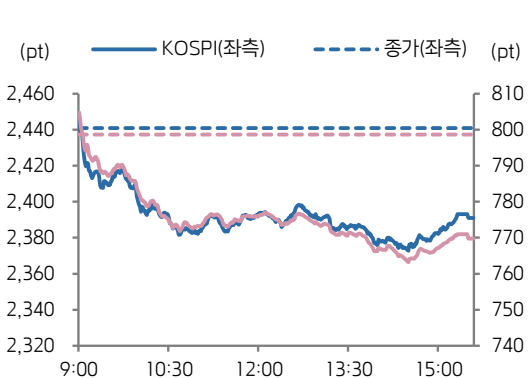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최근 WTI 국제유가는 수요 감소 및 일시적 재고 부담과 맞물리면서 110 달러를 하회하고 있으나,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현 수준의 유가는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을 악화시키고 있는 모습. 6 월 FOMC 에서 파월의장이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을 언급했듯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향후 기대 인플레 변화에 따라 증시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 진정을 위해 유류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옐런 재무장관도 러시아산 유가를 하락시키고자 영국, 캐나다 등 주변 동맹국과 유가 상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한국 등 주요 수출 국가들의 이익과 밀접한 미국의 소비는 최근 기름값 포함 생활 물가 급등으로 위축되고 있으므로, 금주 내로 확정될 예정인 유류세 한시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관련 불안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

전거래일 코스피는 북한 핵실험 우려, 반도체 오더컷 루머 재확산, 주가 장기추세 이탈 우려, 암호화폐 시장 급락 등 여타 불안 요인의 점철로 폭락하면서 2,400 선을 하회(2,391.03pt, -2.0%). 사실상 전거래일 폭락의 뚜렷한 실체가 부재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금일에는 낙폭 과대 인식, 유럽 증시 및 미국 선물 시장 상승에 힘입어 반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 기술적 지표인 코스피의 주간 상대강도지수(RSI) 상 현재 30 선 이하인 과매도 국면(70 선 이상 과매수 국면)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2022년 1월 양적긴축 발자 당시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도 낙폭 과대 인식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 다만, 최근 급락 사태로 인해 개인의 신용 반대매매 물량 출회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6월 1~10일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금액 평균 154억원 vs 6월 13~17일 261억원), 장전 동시호가 및 장 개시 직후 반대매매 물량으로 인한 수급 노이즈를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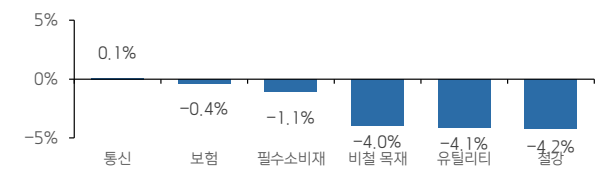
한편, 최근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공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22년 6월 이후 20일 NHN 등 18개 기업이 자사주 매입 공시). 물론 자사주 취득 이후 소각까지 단행해야 유통주식수 감소에 따른 EPS 개선이나 순자산 감소에 따른 ROE 개선이 나타나는 만큼, 단순 매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논란은 존재. 다만, 현재 전반적인 증시 뿐 아니라 개별 주식들의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유통성 효과가 기존에 비해 크다는 점을 감안 시, 개별 종목 접근 차원에서 장중 자사주 매입 공시를 발표하는 기업에도 주목해볼 필요.

###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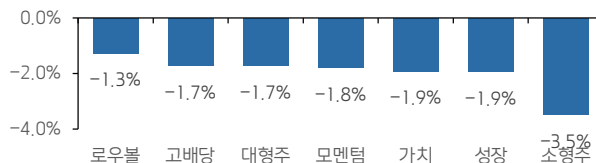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며,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